

들어가면서

◆ 왜 ‘하나님’이라 안하고 ‘하느님’이라고 해요?

1. 언어/문법적 이해. 하느님의 어원은 “하늘+님”
 - 하나·르 + 님=> 하늘님 =>하느님 (아들님, 딸님 => 아드님, 따님)
 - 그럼 ‘하나’의 옛 형태는? ㅎ·나 (ㅎ·나 +님 ???). 그런 표현은 없다.)
2. 신학/철학적 이해. 하늘의 반대/상반 개념은?
 - 일단, 숫자 상 ‘하나’라는 개념은 다수를 전제. (하나로 존재하는 그 것에는 하나라는 말을 안 쓴다.) 유일신 개념과 관련된 ‘하나’는 다수를 전제로 선택의 문제=> 정체성
 - 하늘—같은 의미에서, 하느님—은 존재의 근원을 말하는 은유적 표현. 도(道)

◆ 왜 ‘천국’이라고 안하고 ‘하느님 나라’라고 해요?

1. 알고 나면, 질문이 바뀐다. 왜 하느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해요?로.
 - 천국이란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며, 다른 모든 성경은 ‘하느님 나라’라 쓴다.
 - 마태복음은 하느님(GOD)을 직접 호칭하는 것을 꺼리는 습관 때문에 (출 3:14), ‘하느님’을 ‘하늘’이란 말로 대체.
 - 직역하면, “하늘 나라”(ἡ βασιλεία τῶν οὐρανῶν, The kingdom of the heavens). 영어로는 GOD/Heavens 로 차이가 나지만, 우리말에는 결국 같은 표현=> ‘하늘(님) 나라’ => 하느님 나라. 하늘 나라, 천국 같은 말인데...
2. 그럼 천국의 반대/상반 개념은?
 - 시차적으로 후에 오는 내세, 죽은 후에 오는 세상을 말함이 아니다. ‘하느님’ 대신에 쓰인 ‘로마’=> 곧 로마 제국이다.
 - ‘하느님 나라’와 ‘로마 제국’은 동시대에 존재한다. 선택의 문제.

A. 그리스-로마 배경: Social-Science Criticism (사회/정치적 상황 분석)

- ✓ 예수의 메시지는 한 마디로 “하느님 나라”=> “나라”/kingdom/empire=> 사회/정치적 개념 (서술적? 혹은 수행적? not spiritual! => 행동을 수반/요구(要求)하는 언어)
- ✓ 성서의 말과 행동은 당시의 사회제도 속에서 그 참 의미를 갖는다. 우리의 사회제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(사회-과학 비평)

1. Kinship(가족) and Politics(가족과 가족의 상호관계=>fictive family) “Fictive kinship”=>

Patron/broker/client

사회제도: 혈통관계, 정치, 경제, 종교 (distinct but not separated)

- 혈통(kinship): 연대 의식, 소속감
- 정치(politics): 힘, 권력
- 경제(economics): 상호교환, 적응력
- 종교(religion): 존재 의미 부여, 영향력

- 성서 속 사람들: 혈통(kinship)과 정치(politics)만이 일종의 규범을 형성 (domestic economy/religion vs. political economy/religion). 경제적 부(wealth)는 이것이 주는 명예(honor)를 통해 인식. 부 그 자체는 nothing (우리 세계와의 차이)
- 존재의 의미(종교의 영역)도 소속감(혈통)과 힘(정치)의 논리를 통해 인식
- 귀족(혈통)=>정책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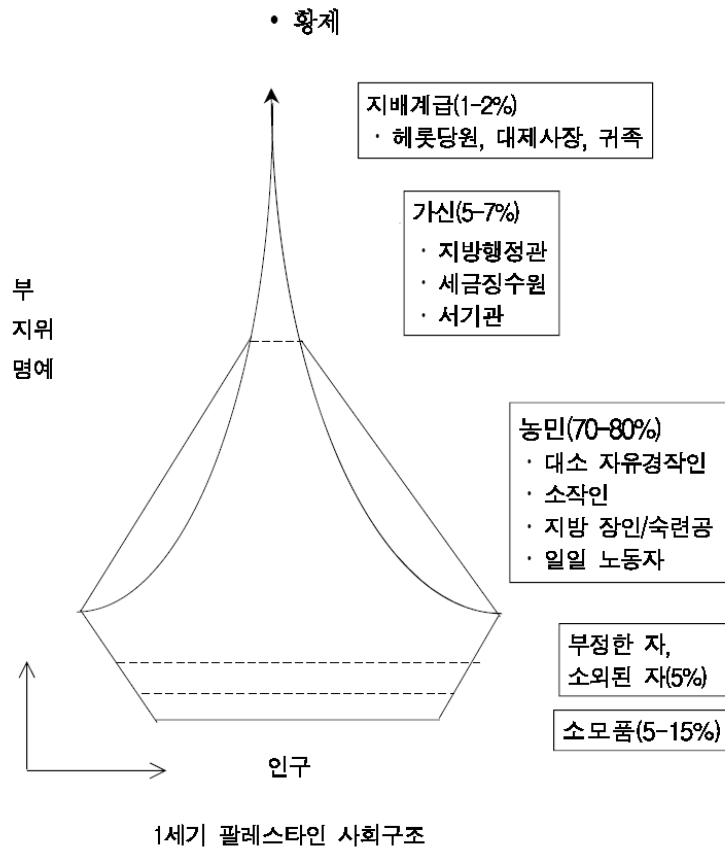
2. 사회구조: (발달된) 농경사회 =>철기사용(효율성=>surplus). 노동력=>사람+ 동물(소, 나귀)

특징: 빈부의 격차. 모든 권력과 부는 소수 귀족/지배계급에 집중

- 지배계급(1-2%)=> 50-65% 부(토지)를 점령
- 가신들(5-7%)=>관료(경제, 군사, 종교) 도시 밖의 토지를 관리(경작, 수확); 세금 징수=> 후견인/의뢰인 제도=> 다스림의 원칙.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반영)
- 상인(5%), 장인(匠人, 3-7%), 농민(peasants=>70-80%)=> 넓은 의미에서 모두 peasants 에 속함
- 천민(5%), expendables(5-15%)

**소모품(The Expendables): Gerhard E. Lenski, *Power and Privilege* (1966), pp. 281-284

- 하찮은 범법자, 거지, 떠돌이 일꾼들로 자선/동냥에 의존해 생활
- 가난한 농민, 장인들 후손으로 아무 유업도 받지 못한 자 (농민계급에서 종종 소모품으로 전락)
- 불법/범법행위만이 유일한 소망, 탈출구



3. 세금: 토지세(land=property+income), 인두세(poll)=> 땅과 사람 모두 로마제국 소유물(proprietary rights). 인구조사=>재고조사

1. 공세(황제): 15%
2. 조세(헤롯왕):20-35%
3. 십일조, 각종 헌물: 10-20%

농민들의 관심. “얼마큼 빼앗겼느냐”가 아니라 “얼마나 남았는가”=> 다음 해 농사가 관건(20%).
최저 생계유지; 물물교환 및 생필품; 공동생활 참여 (기본적 문화생활); 빛..

- ◆ 모자라는 금액=> 저당(토지). loan 20% 이자=> foreclosure (저당물 상실, "편의 전쟁").
자급자족경제 (보리, 콩, 무화과) => 수출입경제 (올리브, 포도, 밀). 무화과 저주 (막 11:12-14)=> 사회/경제 환경 반영?? (cf. 포도/무화과=> 왕상 4:25; 눅 13:6-7)
- ◆ 자작농=>소작인(막 12:1-12) =>일일노동자=>소모품(마 20:1-16). 최악의 경우=> 반란, 항쟁 (최소한 4 차례의 큰 반란) => 아래보기
- ◆ 주기도문=> 빛 탕감(마 6:12//눅 11:4)=>(“죄”라고라?). 마찬가지로, “making friend”(마 5:25-26//눅 12:58-59). 후견인(friend)을 갖는 것이 법정에서 서기관(지배계급 이해/이데올로기를 대변)을 만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빠른 해결책.

B. 반란, 항쟁=>최소한 4 차례의 큰 반란 (공통점. 정부/통치자가 바뀔 때)

1. 40 B.C.E. 헤롯왕(37 BC—4 BCE)
2. 4 B.C.E. 헤롯왕 사후=> 2000여명 십자가 처형
3. 66 C.E. 예루살렘 항쟁. 예루살렘 공격 시(時), 로마 장관 티투스는 하루에 오백 명씩 도망자를 십자가형에 처하기를 성밖에 “더 이상 십자가가 남지 않을 정도까지“ 했다(War 5.11.1-2)
4. 132-35 C.E. 바 코흐바 항쟁

결론. “하느님의 나라/제국”? (로마 제국과 상반되는 개념)

- 브로커 체제: 후견인/의뢰인 제도 전환, 타파. 예수(브로커)는 농민들(의뢰인)에게 하느님(후견인)의 복음을 전함. => 새로운 “가상의 가족”=> 지금의 언어, 상부상조/상생
- “복음”=>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(Pax Romana=>전쟁, 정복; 황제의 생일, 방문) vs. 하느님의 이데올로기/복음=> 신령=> 성령 (다음 주 토폭)

생각해 보기

1. ‘천국’의 개념을 ‘하느님 나라’로 이해할 때, 내 신앙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?
2. 공동 생활을 위해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을 ‘품위 유지비’라 하고, 내가 쓰는 비용이 수입의 얼마를 차지하나?